

정추 선생을 아시나요

문화신포니에타, 31일 '북방에 핀 고려인의 꽃' 정추 선생 교향곡 연주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작곡가 정추(84) 선생은 한번도 고향 광주를 잊은 적이 없다.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음악에 담아온 정추 선생은 지금까지 교향곡, 칸타타 등 300여곡을 작곡하고 카자흐스탄 음악 교육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특히 북한과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민요 1천여편을 채록한 민족음악가이기도 하다.

광주의 한 민간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정추 선생의 삶과 음악을 알리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정추 선생의 곡을 모아 소규모 음악회를 열었던 문화신포니에타(단장 정병열)가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북방에 핀 고려인의 꽃, 정추 박사 교향곡 연주회'를 갖는다.

모스크바 국립 이르쿠츠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예투게니 발린스키)를 초청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



지휘자 발린스키

■ 작곡가 정추 선생은

광주 태생...카자흐스탄 정착 민족음악가

1923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추 선생은 1936년 광주고보와 양정고보를 거쳐 일본대학 예술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 나운영과 함께 민족음악협회를 결성하기도 했던 정추 선생은 모스크바국립음악원 유학중 김일성 개인송배 반대운동을 주도한 후 정치 망명을 신청, 1958년부터 카자흐스탄에 정착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학 음악학부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카자흐스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정추 선생은 러시아어로 된 한국민화집 발간,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 결성 등 조국을 기억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KBS 해외동포상(예술 부문) 등을 수상했다.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필하모니 초청...작곡집도 발간 예정

에서는 아침의 밝아오는 여명처럼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교향시 '조국', 정추 선생이 남북통일이 됐을 때 통일 한국을 알리는 노래로 불리길 바라며 작곡한 '내 조국' 등이 연주된다.

또 '한국무용 영상회상' '서정가요 방아타령', '아이 재우는 소리' '피날레-박연폭포' 등 4악장으로 구성된 '한국적 주제에 의한 교향악 모음곡' 등을 연주한다. 협연자는 베이스 임

해철, 소프라노 노연선, 아쟁연주자 정미정씨 등이다.

문화신포니에타는 올해가 가기 전 가곡집을 모아 다시 한번 작은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작곡집 등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생의 마지막을 고향 광주에서 정리하기를 원하는 정추 선생의 의지에 따라 광주 정착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열 단장은 "우연히 접하게 된

정추 선생 관련 자료와 음악을 듣고 직접 선생님을 방문해 살아온 인생과 음악 작품 등을 접할 수 있었다"며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작곡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선생님의 작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추 선생의 작품과 활동사항은 인터넷 카페(cafe.daum.net/TenCh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음악상에 이태성씨

제 15회 전남음악제
11월 1일 화순군민회관

제 15회 전남음악제가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 화순군민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음악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이호근)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전남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소프라노 조수연·이옥련·차수경, 테너 이상현씨 등이 '햇노래' '오라' 등을 들려준다.

특히 테너 엄정행씨가 특별출연, '박연폭포' '복원화' 등을 선사하며 화순제일초 어머니합창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태성씨

한편 이날 열리는 제 18회 전남음악상 시상식에서는 이태성(60·완도 고금중 교장·사진)씨가 상을 받는다. 34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이씨는 고금중,수북중, 담양여중에서 합창단을 운영했으며 완도중·영광실고 브라즈 밴드를 조직하고 한국관악회 전남도지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찬순·박영집·김은아·서광렬씨는 공로패를 받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애뜻한 정으로 빚어낸 '思婦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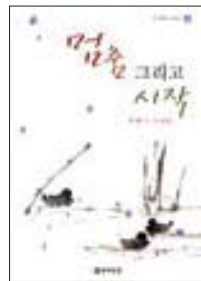
배병수씨 수필집 '멈춤 그리고 시작'

한감이 넘은 나이에 수필가로 데뷔한 배병수(66)씨가 등단 1년도 채 안 돼 수필집을 냈다.

'멈춤 그리고 시작'(문예운동)에는 저자가 봉선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뒤 암 투병 끝에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수필 47편이 실려 있다.

특히 등단작인 '마른 고추대'는 "슬슬하고 외롭고 병든 아내의 육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잘 나타낸 진솔한 수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책 표지와 각 장의 맨 앞에 배치된 수록화는 저자의 아내 고(故) 이영아



배병수씨 수필집 '멈춤 그리고 시작'

씨의 작품이다.

수필가 김병권(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씨는 "애오라지 아내를 그리는 애뜻한 정으로 빚어낸 사부곡(思婦曲)"이라며 "스스로의 체험을 사상과 철학으로 응화시켜 감성의 미학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구미 없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리처드 스위니(영국) 작 '20면체'

아날로그 감수성과 디지털 영감

전통소재인 종이로 조각품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처드 스위니의 대표작.

기하학적 요소를 작품에 활용한 '20면체'는 아날로그적인 감수성과 디지털적인 영감을 결합한 작품으로 종이와 같은 얇은 종이로 2차원적인 입체조형물로 만들기 위해 컴퓨터로 밑그림을 그린 뒤 수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그의 작업은 사물을 고정된 이미지에 묶어두지 않고 내·외부가 끊임없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유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설명된다.

영국 허드스필드 출신인 리처드 스위니는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에 진학, 3D 디자인을 공부한 뒤 종이디자인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비디자이너들의 힘찬 날갯짓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패션쇼

31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제26회 졸업작품 패션쇼가 31일 오후 7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학과장 이숙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졸업을 앞둔 예비 디자이너 54명이 만든 작품 150점이 출품됐다.

'Sensibility & Inspiration(감성과 영감)'을 주제로 열리는 패션쇼는 'Modern & Chic', 'Shall we dance', 'Occult arts' 등 5부로 나눠 기성복과 재즈·차어티더 웨어, 아트웨어, 한복, 이브닝 드레스 등을 선보인다.

출품작 가운데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주관하는 2007 전국학생패션쇼에 초청된 작품을 비롯해 한국의류학회의



황국화 작 'Catharis of Feminism'

한(韓)스타일 공모전 입상작도 포함돼 있다. 문의 016-625-625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순수정신 원우회展

11월1~7일 대동갤러리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석·박사 순수정신 원우회(회장 이지호) 제4회 정기전이 오는 11월1~7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열린다.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 석·박사과정 수료, 재학생들로 구성된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 서양화, 판화 부문에서 실험성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기옥란 김혜숙 송광철 조선아 한민정 김안나 김영애 노민정 박은지 이인성 이정화 이준이 정강임 정향심 조선아 최지연 최호순 홍지애씨 등이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지호 작 'Wild waves II'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www.megabox.co.kr</p> <p>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M관M (15세) 최고급편 2관 궁녀 (18세) 3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4관 행복 (15세)/핀치레이디 (15세) 5관 리지던트이블3 (18세) 6관 바르게살자 (15세) 7관 카핑 베토벤 (12세) 8관 궁녀 (18세) 9관 바르게살자 (15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시네마 www.entercinema.co.kr</p> <p>총창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바르게살자 (15세) 2관 리지던트이블 (15세) 3관 M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5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6관 브레이브원 (15세)/행복 (15세) 7관 궁녀 (18세)</p> <p>* 넓고 편안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과 온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www.joybox.com / 1588-7941</p> <p>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격회관뒷편)</p> <p>1관 카핑베토벤 (12세)/행복 (15세) 2관 핀치레이디 (15세) 3관 러시아워3 (15세)/궁녀 (18세) 4관 궁녀 (18세) 5관 도로로 (15세) 6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7관 바르게살자 (15세)/M (15세) 8관 리지던트이블3 (15세) 9관 M (15세) 10관 바르게살자 (15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 팝콘이 상영합니다 * * 팝콘 100원 * 팝콘 상영중 * * 성인 관람권 1000원 * (1인 or 2인) → 1인</p>	<p>www.cinusa.com / 1544-0070</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궁녀 (18세) 2관 핀치레이디 (15세) 3관 바르게살자 (15세) 4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5관 리지던트이블3 (18세) 6관 비커밍제인 (12세)/M (15세) 7관 M (15세)</p> <p>* 매일 팝콘이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씨너스독자 사무(모바일-캐시)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www.mo12.co.kr / 1588-9101</p> <p>무등극장</p> <p>총창로 1가 ☎ 232-9106</p> <p>1관 러시아워3 (15세) 2관 사랑 (15세) 3관 궁녀 (18세) 4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5관 바르게살자 (15세) 6관 행복 (12세) 7관 카핑베토벤 (12세)/브레이브원 (12세) 8관 비커밍제인 (12세)/브레이브원 (12세) 9관 리지던트이블3 (15세)</p> <p>*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 컴퓨터를 위한 전용휴우미 * * 인터넷 예매 문의 *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전용휴우미 * * 관람객의 편의 *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 1588-9101</p>	<p>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p> <p>제일시네마</p> <p>총창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M (15세) 2관 M (15세)/행복 (15세) 3관 바르게살자 (15세) 4관 궁녀 (18세) 5관 리지던트이블3 (18세) 6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p> <p>*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 *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